

여기는 싱가포르 |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 아시아마져 집어삼키나



‘킹덤’의 주역들! 김민영 한국콘텐츠 디렉터, 김은희 작가, 배우 주지훈, 류승룡, 김성훈 감독(왼쪽부터)이 8일 오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넷플릭스의 ‘씨 왓츠 넥스트: 아시아’ 행사에 참석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한국판 좀비물 ‘킹덤’…넷플릭스의 안방습격사건

영화 ‘옥자’ 스타트…예능 프로 이어
한국 첫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 론칭
김은희 작가·주지훈 주연 기대 만발

“세계는 이야기를 나눌 때 연결된다”
미주·유럽 성공 힘입어 靑 공략 박차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의 시선이 아시아로 향하고 있다. 2010년 초반 미주, 유럽 지역에서의 비약적인 성공에 힘입어 2016년 한국을 포함해 서비스 지역을 190개국으로 확장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2017년 오리지널 작품으로는 최초인 영화 ‘옥자’를 시작해 매해 작품 수를 늘려가고 있다.

●“한국엔 재능있는 배우가 상당히 많다”

넷플릭스가 공략할 미래 시장은 아시아다.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넷플릭스는 8일 아시아태평양 본부가 있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언론을 대상으로 ‘씨 왓츠 넥스트: 아

시아’(See What’s Next: Asia)’라는 제목으로 2019년 라인업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넷플릭스가 2016년 1월 아시아 론칭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벌인 공식행사로, 11개국 200여명 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로 진행됐다. 넷플릭스 창립자 겸 CEO 리드 헤이스팅스, 테드 사라도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 토드 엘런 제품 혁신 부문 부사장, 넷플릭스 아시아 콘텐츠 임원진이 자리해 아시아 시장의 경쟁력에 대한 관심을 엿보게 했다.

리드 헤이스팅스 CEO는 “세계는 이야기를 나눌 때 연결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 세계의 뛰어난 이야기와 위대한 이야기꾼들을 찾아내 투자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시아 론칭 이후 넷플릭스 제작의 한국 오리지널 작품 수는 증가했다. 2017년에는 ‘옥자’ 1편에 그쳤지만 2018년은 ‘유병재의 B의 농담’ 1·2편 ‘범인은 바로 너!’ ‘라바 아일랜드’ 등 모두 4편이다. 2019년 라인업은 현재 공개된 것만 4편으로 향후 제작 가능성은 더 열려있다.

테드 사라도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는 “각종 언어적, 문화적 제약을 뛰어넘고, 보



‘킹덤’에서 반역자로 몰린 왕세자 역할을 맡은 주지훈. 사진제공 | 넷플릭스

다 좋은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가 함께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아시아는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시아의 독특한 스토리텔링과 글로벌 기술이 만나 특별한 프로젝트로 탄생했다. 이 새로운 시리즈들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만족시키는 콘텐츠들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동남아, 인도, 한국, 일본의 콘텐츠 디렉터들은 “각국의 로컬 스토리를 발굴해 넷플릭스의 플랫폼을 거쳐 글로벌 콘텐츠로 성장시키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민영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디렉터는 “큐레이팅이 잘 된 콘텐츠를 찾는 넷플릭스 시청자에게 한국 시장은 재능 있는

배우가 굉장히 많다”고 매력을 소개했다.

●“‘킹덤’, 강력하고 흥미로운 콘텐츠의 탄생”

이날 행사 중 취재진의 집중도가 가장 높았던 시간은 드라마 ‘킹덤’이 소개되는 순간이었다. 1분11초 동안 200여명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쏠렸다. 이날 ‘킹덤’의 티저 영상이 최초로 공개됐고, 영상 말미 론칭 날짜가 등장해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이어졌다.

‘킹덤’은 넷플릭스의 한국 최초 오리지널 드라마로, 굶주린 끝에 좀비가 되어버린 이들의 비밀을 ‘반역자로 몰린’ 왕세자(주지훈)가 파헤치는 이야기. 류승룡 배우나 김상호 등도 출연하며, 영화 ‘더닐’의 김성훈 감독과 ‘시그널’ 김은희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2019년 1월25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며, 시즌2 제작도 확정됐다.

김은희 작가는 “2011년부터 기획했지만 대본 작업이 힘들었다. 기존 플랫폼에서 불가능했던 부분이 넷플릭스를 만나 좀 더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훈 감독은 “외롭고 쓸쓸한 카리스마를 가진 캐릭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주지훈이었다. 이 작품을 통해 주지훈을 처음 알았는데 센스와 능력이 탁월하다. 부상을 당

하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하더라”고 했다.

류승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무한한 편안함을 줬다”고, 배우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동료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지를 아는 최고의 배우”고 극찬했다.

이날 ‘킹덤’은 넷플릭스 대표작 ‘하우스 오브 카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으며,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자들이 입을 모아 높이 평가했다. 리드 헤이스팅스 CEO는 “‘킹덤’은 거대한 쇼다. 이 쇼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리라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테드 사라도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는 “강력하고도 흥미로운 콘텐츠의 탄생”이라고 소개했다.

테드 사라도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는 ‘킹덤’에 대해 “뛰어난 이야기는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증명해준 작품이다. 굉장히 놀라웠다”며 “초자연적 판타지와 역사적 사실이 결합해 영화적 스케일로 화려하게 완성됐다”고 말했다. 김민영 한국 콘텐츠 디렉터는 “‘킹덤’은 장르적인 면에서 넷플릭스가 최상의 플랫폼이라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한국드라마를 보지 않았던 사람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라고 확신했다.

싱가포르 |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정치 스릴러 ‘하오카’…마약왕 실화 ‘나르코스’

(하우스 오브 카드)

넷플릭스의 ‘킬러 콘텐츠’는?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수익성보다 콘텐츠 확보에 집중하며 막대한 제작비를 쏟아 붓고 있는 넷플릭스가 전 세계 시청자들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콘텐츠를 공개했다.

넷플릭스는 8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최초 라인업 소개 행사를 열고 자사 ‘킬러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했다. 그 중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콘텐츠 중 하나는 ‘하우스 오브 카드’의 새 시리즈. 2013년 2월 첫 방송한 ‘하우스 오브 카드’는 지난해 시즌 5에 이어 2일 시즌6이 시작됐다.

정치 스릴러를 표방한 드라마는 이번 시즌에서 마침내 백악관 주인이 되며 권력의 정점에 오른 클레이 언더우드와 그녀를 둘러싼 정계의 야망과 음모, 비리 등을 치열하게 그려나갈 예정이다. 다섯 번째 시리즈를 이어

오며 술한 화제를 모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열렬한 팬”이라고 할 정도 큰 인기를 끌었다.

국내에서도 ‘하오카(하우스오브카드)’ 페인’을 양산한 드라마는 아쉽게도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다. 총괄 제작자 겸 배우 로빈 라이트는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중영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14년 제7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 테드 사라

도스는 “가장 큰 위험을 안고 간 작품이다. 하지만 가장 뛰어난 이야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 ‘하우스 오브 카드’는 온 디맨드(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의 조상이 됐다”고 평가했다.

‘나르코스’도 새로운 시리즈를 앞두고 있다. 16일 전 세계에 동시에 방송하는 ‘나르코스 : 멕시코’는 멕시코로 장소를 옮겨 시즌1.2에서 다뤘던 콜롬비아의 전설적인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멕시코의 ‘국민배우’로 불리는 디에

고 루나가 출연한다.

또 첫 방송 전부터 기대를 받고 있는 ‘엠프렐라 아카데미’와 ‘모글리’도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2019년 2월15일 처음 공개되는 ‘엠프렐라 아카데미’ 시즌1은 한낱 한시에 태어난 억만장자에게 입양된 7명의 초능력자들이 양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다. 12월7일부터 방송하는 ‘모글리’는 디즈니 ‘정글북’ 속 이야기의 몇 년 후를 배경으로 소년 모글리가 자연과 인간 세상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는다.

싱가포르 | 백솔미 기자

연예 뉴스테이션

전현무, 미혼모 지원 1억원 기부



전현무

방송인 전현무가 미혼모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8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측은 “전현무가 최근 미혼모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소속사 S M C&C 측은 “전현무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미혼모 가족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생일에 맞춰 기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전현무는 앞서 2016년 한국심장재단을 통해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기부금과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기부활동도 여럿 행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김종환, 신춘문에 통해 시인 등단



김종환

싱어송라이터 김종환이 신춘문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김종환은 최근 월간종합문예지 ‘문학세계’와 세계문인협회, 주간 ‘시세계’가 주관한 시 부문 신인문학상에 당선됐다. 대중가수가 권위의 문예지를 통해 문인으로 등단한 사례는 김종환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환은 이번 신인문학상 시 부문에 ‘사랑하는 일’ ‘서리꽃’ ‘지우개 같은 추억은 없네’ 등 세 편을 출품해 당선됐다. 김종환의 당선작은 ‘문학세계’ 10월호에 게재됐으며, 신인문학상 시상식은 18일 오후 1시 서울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종환은 ‘사랑을 위하여’ ‘존재의 이유’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해외 저작권 수입, 79억원 돌파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등 케이팝 가수들의 활약으로 해외 저작권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30일까지 해외 음악 저작권 단계로부터 징수된 저작권료는 약 79억 원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징수된 금액인 77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한음저협 측은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케이팝 아티스트의 활약이 이제 국가의 실익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내년 이후로는 해외 저작권 사용료가 지금 보다 더 큰 성장이 예상된다. 케이팝 열풍에 힘입어 올해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 목표인 2000억 원은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빅플로 론·이사강, 내년 1월 결혼



이사강

그들 빅플로 론(28)과 뮤지비디오 감독 이사강(39)이 결혼한다. 8일 론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내년 1월 27일 결혼하며, 장소는 미정이다. 론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1년 넘게 교제를 했으며,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몇 개월 전 접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자세한 러브 스토리는 공개되지 않았다. 론은 2014년 빅플로 멤버로 데뷔했다. 빅플로의 최근작은 8월 발표한 ‘엠퍼사이즈’ 앨범이다. 론은 내년 결혼 후 군에 입대할 예정이다. 이사강 감독은 2AM ‘친구의 고백’, 정준영 ‘병이에요’ ‘이별 10분 전’, 나인뮤지스 ‘드라마’, ‘글루’, ‘티켓’, 에릭남 ‘우유’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다.

마마무, 29일 새 미니앨범 발표



마마무

그들 마마무가 29일 여덟 번째 미니앨범을 발표한다.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 가을 시즌에 해당하는 음반이다. 멤버 솔라의 상징컬러인 ‘블루’가 중심을 이룬다. 소속사 RBW는 “마마무의 가을 감성을 담아냈다. 한층 성숙해진 마마무의 가을 무드를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마마무는 올해 초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봄에 ‘별이 빛나는 밤’, 여름에 ‘너나 해’로 주요 차트를 휩쓸며 S/S 시즌을 마쳤다. 이번 새 미니앨범을 시작으로 F/W 시즌도 알차게 그려나갔겠다는 계획이다. 마마무는 12월15·16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콘서트 ‘2018 4시즌 F/W’를 연다.